

[FRANCE] 아나 멘디에타, 시간과 역사는 나를 뒤덮는다

아나 멘디아타: 시간과 역사는 나를 뒤덮는다(Le Temps et l'Histoire me recouvrent) 2018.10.16~2019.1.27 파리 주 드폼(Jeu de Paume Paris)

France Ana Mendieta: Le Temps et l'Histoire me recouvrent

저자 (Authors)	김수아 Kim, Soo a
출처 (Source)	미술세계 76 , 2018.12, 142-147(6 pages) Monthly Art Magazine : Misulsegae 76 , 2018.12, 142-147(6 pages)
발행처 (Publisher)	미술세계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5481
APA Style	김수아 (2018). [FRANCE] 아나 멘디에타, 시간과 역사는 나를 뒤덮는다. 미술세계, 76, 142-147
이용정보 (Accessed)	덕성여자대학교 220.93.82.*** 2019/10/23 01: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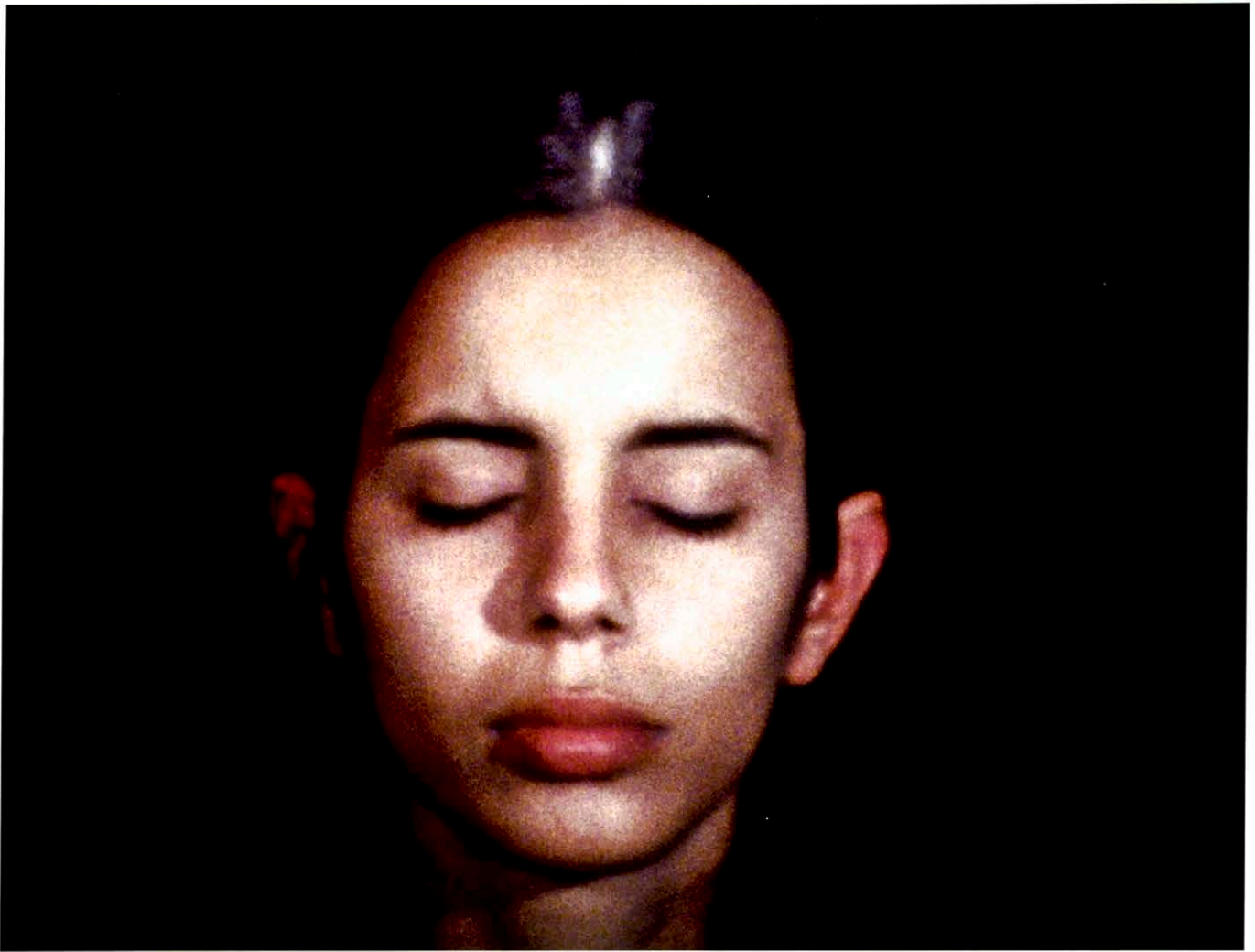
아나 멘디에타 시간과 역사는 나를 뒤덮는다

《아나 멘디에타: 시간과 역사는 나를 뒤덮는다(Le Temps et l'Histoire me recouvrent)》

2018.10.16 - 2019.1.27 | 파리 주드폼(Jeu de Paume à Paris)

글 김수아 프랑스 통신원
이미지 제공 파리 주드폼

아나 멘디에타, 〈아날 이미지〉(Image de Vague), 1973/2018 ©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LLC. Courtesy Galerie Lelong & Co.



아나 멘디에타, <흐르는 피(Sweating Blood)>, 슈퍼 8 필름, 1973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LLC. Courtesy Galerie Lelong & Co.

《시간과 역사는 나를 뒤덮는다(Le Temps et l'Histoire me recouvrent)》. 쿠바 출신의 미국 예술가 아나 멘디에타(Ana Mendieta, 1948~1985)의 프랑스 첫 회고전 제목이자 1973년에 제작된 멘디에타의 작품 <야굴 이미지(Imágen de Yáguil)>를 인용하는 문장이다. 이번 전시의 도입부를 장식하고 있기도 한 이 작품은 멘디에타의 대표작인 <실루에타(Silueta)> 연작 중 하나로, 고대 아즈텍 무덤 안에 누운 작가의 나신과 그 위를 뒤덮은 하얀 꽃을 담은 사진 작품이다. 후에 이 작품에 대해 회고하며 멘디에타는 멕시코 여행 중 잡초로 무성한 고대 아즈텍 무덤을 보고 '시간'이란 개념을 떠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하얀 꽃을 사와 무덤 안에 누워 온 몸을 꽃으로 뒤덮은 뒤 생각했다고 한다. '시간과 역사가 나를 뒤덮었다'고.

파리 주드폼(Jeu de Paume à Paris)에서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약 스무 점의 비디오와 서른 점의 사진을 모아 놓은 아나 멘디에타의 첫 프랑스 회고전이다. 지금까지 많은 전시들이 그의 조각 작품이나 사진을 중심으로 소개해 왔다면 이번 전시는 5분 내외의

짧은 퍼포먼스 영상들과 관련 사진들을 함께 전시한다. 이 작품들 중에는 아나 멘디에타의 가족이자 감독인 라켈 세실리아 멘디에타(Raquel Cecilia Mendieta)가 긴 시간동안 진행해온 복원 작업 끝에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영상들 역시 다수 포함하고 있다.

쿠바와 미국, 정체성의 혼란

아나 멘디에타는 1948년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이그나시오 멘디에타(Ignacio Mendieta)는 당시 혁명을 이끌던 카스트로 정권에 저항하는 정치가였다. 1959년 혁명 후 쿠바 정권이 카스트로 독재 체제에 돌입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그의 아버지는 쿠바 카톨릭 교회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연합 아동 구출 작전인 '피터팬 작전(Operation Pedro Pan)'을 통해 1961년, 어린 멘디에타와 그의 언니를 미국으로 보낸다. 이후 미국 아이오와(Iowa)의 한 고아원으로 보내진 이들이 어머니와 남동생을 다시 만난 것은 약 5년이 흐른 뒤였고, 반혁명주의자로 체포된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주하기까지 약 18년이란 세월이 소요됐다. 이런 북

잡한 정치적 상황에 의한 가족과의 이별, 고향과의 단절 그리고 낮은 나라로의 이주까지. 열두 살의 어린 아나 멘디에타가 겪어야 했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쿠바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상실감 등은 이후 그의 예술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지 위의 흔적, 대지-신체 미술(earth-body art)

아나 멘디에타는 작품을 통해 종교, 지역, 사회, 정치적 경계를 거침없이 넘나든다. 또한 그림, 조각, 퍼포먼스,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20년도 채 되지 않는 활동기간 동안 200여 개의 작품을 남겼다. 그중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그간 멘디에타가 탐구해온 중심 주제와 개념들을 매우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화면 속 멘디에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 등장하거나 불이나 모래, 파도, 진흙 등에 '실루에타(Silueta)'로써, 즉 자연 속에 흔적으로써 나타난다. 그 흔적들은 때로는 동굴이나 무덤, 화산의 형태를 띠거나 여성의 신체 실루엣이나 성기 또는 손 모양이 되기도 한다. 그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신의 신체를 창작을 위한 도구이자 작품 자체로 사용하는, 이른바

대지와 신체를 결합한 고유의 작업방식인 '대지-신체(earth-body)' 작업을 만들어냈다. 그가 이와 같은 대지-신체 작업을 창조하게 된 것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며 당시 미술계의 큰 흐름이던 퍼포먼스와 대지미술(Land art)등을 접한 경험과, 멕시코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으로 떠난 유적 발굴 여행 경험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이 여행에서 토착문화와 유럽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의 문화 역사적 환경에 심취하게 되는데, 이는 쿠바와 미국 두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모두 품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멕시코의 복합적인 문화역사적 정체성에서 어떤 의미나 연결고리를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멘디에타는 멕시코와 쿠바, 미국을 오가며 다양한 역사적 장소에서 대지-신체 작업을 전개했다.

흔적이나 존재로서 기억하는 것

첫 멕시코 여행 이후 아나 멘디에타는 매해 여름 멕시코를 방문해 여러 유적지를 돌며 대지-신체 작업을 진행하고 확장해나갔다. 그중 전시 초반에 설치된 두 작품은 1974년 여름 멕시코의 야굴(Yácul) 유적지에서 제작된 작품들이다. 《매장 피라미드(Burial



아나 멘디에타, 〈피로 된 돌 심장(Corazón de Roca con Sangre)〉, 슈퍼 8 필름, 1975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LLC. Courtesy Galerie Lelong & Co.

Pyramid))(1974)는 화면 가득 돌이 쌓여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돌더미 속에 파묻혀 얼굴만 겨우 드러낸 아나 멘디에타의 모습이 서서히 눈에 띈다. 영상의 초반까지는 돌 속에 파묻힌 그의 몸마저도 자연의 일부인 듯 전체적인 풍경이 잠잠하고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다. 그러나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면서부터 점점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한다. 멘디에타가 고통스러워 보일 정도로 온 몸을 들썩이며 거친 호흡을 내뿜기 시작하면, 몸 위를 짓누르고 있던 돌들이 요동치다 하나 둘 굴러 떨어지고, 그 아래 묻혀있던 멘디에타의 몸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후 호흡이 잦아들고 풍경이 다시 서서히 고요해지면 화면이 암전된다. 이 강렬한 작품에서 멘디에타의 몸과 그 주변으로 쌓여있는 돌은 시간의 축적과 역사의 무게에 대한 메타포이다. 그는 여기에 숨을 쉬고 내뿜는 호흡이라는 반복운동을 통해 역사가 과거의 것이 아닌 진행형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미로 실루엣: 미로 핏자국(Silueta del Laberinto: Laberinth Blood Imprint))(1974) 역시 시간과 역사, 기억에 관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멘디에타는 오래된 돌담과 비석 등 과거 문명의 흔적을 간직한 유적지 안을 미로 탐험하듯 빠르게 훑는 화면으로 흐르는 시간을 표현했고, 비석과 땅위에 핏자국으로 남은 실루엣타를 여러 각도로 화면에 담아내며 유적과 새겨진 흔적, 즉 역사에 대한 기억을 표현하고자 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

아나 멘디에타는 1974년부터 1981년까지 다수의 작품에서 불을 중심 소재로 사용했다. 주로 화약가루를 사용해 만든 '실루엣타' 형상에 불을 붙여 작품에 드라마틱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방식의 작업이었다. <화산(Volcan))(1979)은 잔잔한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풍경 안에 만들어놓은 작은 분화구 모형을 화면에 담으며 시작한다. 영상 속 이 평온함은 분화구에 그려놓은 '실루엣타'에 불이 붙어 타오름과 동시에 금세 깨져버린다. 때문에 실루엣타는 뿌연 연기 속까만 흔적이 되어 폐허처럼 남게 된다. 대개 땅(대지)은 집이나 돌아갈 곳과 결부되어 안정감을 주는 장소와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유년 시절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강제로 가족과 이별하고 고향을 떠난 기억이 있는 멘디에타는 대지 위에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 까맣게 타버린 흔적을 남겨 외부로의 폭발과 내부의 붕괴를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로서의 대지, 집을 표현하려 했다. 또한 불이 타오르고 사그라드는 과정을 통해 유년 시절의 아픈 기억을 위로하고 내면의 분노를 정화하고자 했다.

화해와 정화의 원천으로서의 물

아나 멘디에타의 작품에서 물은 주로 정신적인 탐구나 정화, 화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중에서도 <개울(Creek))(1974)은 멘



위부터

아나 멘디에타, <매장 피라미드(Burial Pyramid)), 슈퍼 8 필름, 1974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LLC. Courtesy Galerie Lelong & Co.

아나 멘디에타, <아레나 실루엣타(Silueta de Arena)), 슈퍼 8 필름, 1978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LLC. Courtesy Galerie Lelong & Co.

아나 멘디에타, <무제: 실루엣타 연작(Untitled: Silueta Series)), 슈퍼 8 필름, 1978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LLC. Courtesy Galerie Lelong & Co.



아나 멘디에타, <개울(Creek)>, 슈퍼 8 필름, 1974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LLC. Courtesy Galerie Lelong & Co.

디에타의 안정감 있는 회화적 구성 능력과 전통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해체하는 특유의 대담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이 작품에서 멘디에타는 직접 얹은 물속으로 들어가 대자연의 한복판에 자신을 무방비하게 내던진다. 내러티브의 부재로 이 작품은 그 시작과 끝을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이 때문에 멘디에타의 몸 위를 흐르는 물줄기는 시간을 초월해 끝없이 흐를 듯한 인상을 준다. 멘디에타는 이를 통해 인생의 덧없음과 자연의 영원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오춘(Ochún)>¹⁾(1981)은 쿠바와 가장 가까운 마이애미 최남단의 해변에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여기서 멘디에타는 기존 '실루에타'의 위, 아래를 허물어 바닷물이 그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연출했다. 이는 <개울>에서 흐르는 물이 가진 진리 탐구적 의미와는 달리 조금 더 개인적인 영역의 것으로, 멘디에타는 작품 안에서 흐르는 바닷물이 쿠바와 미국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해소하고 이별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존재라 여겼다.

피와 저항의식

아나 멘디에타는 작품 활동 초기에 해당하는 1972년부터 1975년까

지 제작된 49편의 영상 중 총 18편의 작품에서 피를 주재료로 사용했다. 그는 종교, 문화,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강렬한 메타포를 만들어내기 위해 실제 피(닭피나 도살장의 피)를 사용하거나 가짜 피를 만들어 썼다. 예를 들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된 멘디에타의 얼굴 전체로 피가 흘러 번져나가는 강렬한 이미지를 담은 <흐르는 피(Sweating Blood)>(1973)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과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의지를 은유적이지만 충격적인 시각 효과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손에 묻은 피로 벽 위에 '내 안에 악마가 있다(There is a devil inside me)'라는 문장을 써내려가는 멘디에타의 모습을 담은 <블러드 싸인(Blood Sign)>(1975)은 여성의 몸과 정체성에 대한 탐구이자 신체적, 정신적 억압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아나 멘디에타는 페미니즘 운동이 매우 성행했던 1970년대에 활동한 작가이고, 실제로도 피를 사용해 만든 그의 초창기 작업은 대부분 여성인권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게다가 뉴욕으로 이주하자마자 여성 미술가들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 'A.I.R.(Art



1 아나 멘디에타, <화산(Volcán)>, 1979/1997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LLC. Courtesy Galerie Lelong & Co.

2 아나 멘디에타, <오춘(Ochún)>, 비디오, 1981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LLC. Courtesy Galerie Lelong & Co.

3 아나 멘디에타, <탄생: 화약작업(Birth : Gunpowder Works)>
슈퍼 8 필름, 1981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LLC. Courtesy Galerie Lelong & Co.

in Residence) 갤러리'에 소속돼 활발히 활동했으니, 아나 멘디에타를 페미니즘 미술가라 부르는 것도 가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남편인 칼 안드레(Carl Andre)와의 다툼 후 의문의 사고사를 둘러싼 미스터리까지 합쳐져 그는 일종의 아이콘이 되어 죽어서까지 각종 여론에 시달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멘디에타를 여성 미술가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는 족쇄가 되어 그동안 미술가로서는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이번 회고전은 '시간과 역사는 나를 뒤덮는다'라는 전시명에서부터 시사하듯 페미니즘

미술가, 여성 미술가로 의미를 한정한 아나 멘디에타가 아닌 그냥 뛰어난 미술가로서의 아나 멘디에타를 소개하는데 주력한다. 어떤 타이틀에 갇히거나 한 가지 주제에 국한된 전시가 아닌, 약 15년간 200여 개의 수작을 남긴 저력 있는 미술가 아나 멘디에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함에 있어 유의미하다. ▣

1 — '오춘'은 물의 신, 사랑과 미의 신, 풍요의 신을 의미한다.